



警大學報

Th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Press

學訓
祖國
正義
名譽

제198호



2016년 12월 13일 화요일 / 발행인 서범수 / 주간 하미나 / 편집장 조정필 /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 전화 (041) 968-2114 / www.police.ac.kr

낭만과 꿈이 가득한 축제의 열기 속으로, 제36회 청람축전 개최

가을이 깊어가는 9월의 마지막 주, 경찰대학에서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에 걸쳐 ‘제36회 청람축전’이 개최되었다. 이번 청람축전은 청람로와 학생회관, 운동장 등에서 경찰대학 총학생회와 축제준비위원회(이하 축준위)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는 특히 아산으로 이전한 첫해인 만큼 새로 단장한 아산 캠퍼스로 손님을 초대하는 ‘집들이’를 테마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청람축전은 전야제인 ‘고사제’로 시작되었다. 학생회관 앞에서 풍물동아리 ‘한마당’의 풍물놀이를 서두로 고사를 지내며 대학생들은 다 함께 성공적인 제36회 청람축전을 기원했다. 이어 중운동장에서는 선후배, 동기들과 함께 야외에서 밤을 보내는 ‘어울림캠프’가 펼쳐져 학생들은 가을 별빛이 가득한 하늘아래에 모여앉아 바비큐와 맥주를 즐기면서 낭만적인 축제의 전야를 즐겼다.

27일 아침 경도관에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열렸다. 개막식 후 이어진 첫 행사는 대학생들의 ‘무도시범’이었다. 멋진 유도기술, 검도의 짙단 베기, 태권도 송판격파, 합기도 호신술 등 대학생들이 수련해 온 4대 무도의 시범이 펼쳐지며 관중의 탄성을 자아냈다. 이어 소강당에서는



▲ 학생들이 푸른 메아리에서 그동안 준비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 전야제 행사에서 무도 시범을 보인 검도부 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재학생과 경찰교향악단의 협연이 펼쳐졌고 교육생식당에서는 치안정책과 정 교육생과 4학년 학생들의 ‘선배와의 만남’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오후부터는 대학생들이 주 행사장인 청람로를 따라 가관을 운영하고, 대운동장과 경도관에서는 친선 축구 경기와 농구대회가 열리는 등 대학생들을 비롯하여 교수진, 교육생, 지역주민 등 구성원 모두가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행사들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남·녀 생활관 오픈하우스’ 행사를 열어, 짧은 시간이지만 남녀 대학생들

이 서로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주어진 음식을 가장 빨리 먹은 사람이 승리하는 ‘푸드파이터’, 축준위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페인트볼 서바이벌’, ‘가상 음주 체험’, 범죄수사연구회의 ‘방탈출 카페’ 등 이색적인 즐길거리들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둘째 날에는 ‘대학생 바둑대회’, ‘한마음 웃놀이’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한마음 웃놀이’ 행사에는 경찰대학에서 수학중인 세계각지의 교환학생들과 본교 학생이 함께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즐기기도 했다. 이 날 생

활관 앞에 설치된 주 무대에서는 춤동아리 ‘프리매니아’와 밴드 동아리 ‘푸르미’가 열정적인 공연을 펼쳤다.

또한 행사기간 중 학생식당에서는 학생들이 손수 운동화에 그림을 그려 제3세계 국가에 선물하는 ‘사랑의 운동화 만들기’ 행사, 대학생들이 그림을 그려 지역사회에 ‘에코백’을 기부하는 ‘에코백 만들기’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되면서, 청람축전을 나눈의 장으로 승화시켰다.

마지막 날 주 무대에서는 음악동아리 ‘오르골’의 공연을 시작으로 대학생들이 갈고닦아왔던 끼를 발산하는 ‘푸른메아리’ 무대가 열렸고 이

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젊음의 밤’행사가 진행되었다. 순천향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댄스 동아리들의 특별 공연과 초청가수인 ‘홍진영’, ‘울랄라세션’, ‘리블리즈’의 뜨거운 무대는 관중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며 화려한 밤을 장식했다.

축준위 위원장 3학년 임준형 학생은 “올해 아산으로 이전한 만큼, ‘집들이’라는 테마에 맞춰 대학가족 뿐만 아니라, 주변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에코백·운동화 기부 행사 등에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뿌듯했고, 경찰대학이 사회에 녹아들 수 있었던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며 축제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대학생들이 열정과 땀을 쏟아서 만들어 제36회 청람축전, 그 사흘간의 낭만적인 시간은 경찰대학생들이 끼와 문화를 발산하는 장이기도 했지만, 화합과 나눔의 정신을 기반으로 정신적으로 더욱 성숙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나아가 청람축전이 학생들 간에 창의적이고 건전한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학년 현경서 기자
luckykite96@police.ac.kr〉

2016 아시아 경찰대학생 페스티벌(PASFA) 개최



▲ 경찰대학장 및 주요 인사와 아시아 각국의 경찰교육기관 학생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6년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아산시 경찰대학 교정에서 ‘2016 아시아 경찰대학생 페스티벌(PASFA)’이 개최되었다. 12일간의 일정으로 이루어진 이번 페스티벌에는 대한민국 경찰대학(이하 경찰대학)의 학생 20명을 비롯하여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등 총 8개국 9개 경찰교육기관들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2016 PASFA는 아시아 지역 경찰대학생들이 소통하며 친분을 쌓는 공간이 될과 동시에, 선진치안기법의 공유를 통해 아시아의 치안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페스티벌의 활동들은 두 가지 키워드에 맞추어 구성되었다. 먼저 ‘허물없이 말을 건네는 사이’라는 뜻의 〈너나들이〉라는 키워드에 맞춘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의 문화체험활동, 체육 활동, 놀이 활동 등을 진행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아시아 각국의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PASFA에 참가한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의 Iskandar Kamal

Bacha(이스칸다)는 “참가자 학생들과 물총놀이, 물풍선 놀이를 했던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라며,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로 보였지만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학생들의 친밀감 형성에 놀이 활동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다음으로 아시아 경찰의 협력을 통한 치안 수준 제고를 뜻하는 〈아시아 경찰의 미래를 위한 동행〉이라는 키워드에 맞춘 활동으로는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치안강의, 각국의 학생들이 함께 치안 관련 주제로 진행한 토론 등이 있었다. 토론에 참여했던 경찰대학 1학년 이제영 학생은 “각국의 현재 치안 상황이나 국제 협력에 대한 입장을 듣다 보니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을 깨달았고, 토론의 내용이 실현되면 차후 아시아 치안 질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렇듯 PASFA를 통해 학생들은 세계를 향한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을 했다. 하지만 학생들 간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경찰의 유대와 협력 관계까지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아시아 경찰의 끈끈한 유대를 통해 범국가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아시아 사회가 이룩되길 바란다.

〈1학년 이상엽 기자
youplys@police.ac.kr〉

경찰대학, 제2회 치안학술대회 개최

지난 9월 30일 경찰대학 소강당에서 장차 미래 치안 분야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세계 여러 나라의 학생들과 학술적 교류를 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고, 실제 치안 정책에 반영 가능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인 ‘제2회 대학생 국제 치안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올해로 2회를 맞은 국제 치안학술대회는 초대 대회 개최 당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꾀했다. 학교 견학, 참가자 만찬 등의 일정을 생략하여 참가자들의 부담을 덜고, 대외활동 사이트에 광고를 신거나 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홍보하는 등 대회의 질 향상과 참가 독려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손선호 치안학술대회 준비위원장(경찰대학 4학년)은 “국내적으로 인지도를 다지고, 이후에 이를 토대로 국제대회를 개최할 대외적인 역할을 갖추어 대회의 외연을 넓힘과 동시에 치안대학원생의 참가 또한 이루어진다면 더욱 수준 높은 대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치안학술대회의 발전가능성을 내다보았다.

대회는 경찰대학 총학생장 학생의 개회사와, “이번 대회가 미래의 세계 경찰의 발전을 위한 학술적인 기반이 되길 바란다.”는 백승호 경찰대학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본선 대회에 참가한 6팀은 논문 심사를 거쳐 선발된 참가자들로, 문수·이재영(경찰대학), 오동빈·이찬희(경찰대학),

장준혁·김보미(건국대학교), Andrea Bergstroem(영국 포츠머스대학), 최형표(순천향대학교)·김형규(경찰대학), 박대철·오윤지(경찰대학) 학생이었다. 위의 각 팀은 ‘폴리스웨어(policewear)’, ‘얼굴인식 카메라 프로그램’, ‘고립 캠퍼스 범죄’ 등 자신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치안분야 주제의 연구논문을 토대로,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15분간 영어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최우수상(경찰대학장 표창, 상금 200만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치안유해현상의 심각성과 미디어 문화 치안강화를 위한 효과적 경찰활동 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경찰대학 박대철·오윤지 학생이 차지하였다. 박대철·오윤지 학생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문제점이 많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였다”며 “이슈화된 지 오래지 않은 문제이다 보니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접근하기 어려웠으나 좋은 결과를 얻어 다행”이라고 우수 소감을 밝혔다. 우수상(경찰대학장 표창, 상금 100만원)은 건국대학 장준혁·김보미 학생에게 돌아갔고, 장려상(경찰대학장 표창, 상금 70만원)은 포츠머스대학의 Andrea Bergstroem, 경찰



▲ 제2회 치안학술대회 최우수팀인 경찰대학 오윤지, 박대철 학생이 전임 경찰대학장(백승호)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학 오동빈·이찬희 학생 총 두 팀이 수상하였다. 장려상을 수상한 영국의 교환학생인 포츠머스대학의 Andrea Bergstroem은 “연구와 발표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치안활동과 경찰제도 등 내가 흥미 있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얻게 되어 좋았다. 한국의 초대를 받아 영광이었다”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치안학술대회에 참가한 여러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치안 분야의 미래를 이끌 지도자가 되기 위한 길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었다. 앞으로도 치안학술대회가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경찰대학은 치안학술분야의 메카로, 학생들은 미래 치안지도자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학년 현경서 기자
luckykite96@police.ac.kr〉

청탁금지법 충격요법 통해 부정부패 청산

대한민국 윤리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

앞으로 공무원들은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거나 5만 원을 넘는 상품권 혹은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는 바로 올해 9월 28일자로 시행된 약칭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은 김영란 전 대법원장의 제안으로 2011년 6월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일환으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입법예고 이후 1년 동안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또한,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 등으로서 이는 공무원 뿐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을 말한다. 또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와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 즉 공무수행사인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음, 식사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달하는 형사처벌을 받고, 당사자와 직무관련성이 있고 금품수수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국민의 신뢰, 공정성 등의 좋은 취지에도 청탁금지법의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그 원인으로 먼저 적용대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부정청탁자나 금품수수자를 처벌하는 형법적 성격을 근거로 청탁금지법이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임직원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같은 맥락에서 적용대상을 공무원과 공직수행기관의 구성원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명확한 근거 없이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무분별한 수사로 이어져 ‘수사공화국’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배우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한 배우자의 불고지죄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호소했다.

내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도 결립돌이 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초래될 경제손실 규모를 연 11조 6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김재만 한국수산업총연합회 부회장, 김홍길 한국농축산물협회 운영위원 등은 농축수산물, 화훼업, 외식업 등의 특수성과 국내시장의 위

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장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이용한 대중영합주의적인 입법이라며 힐난했다. 각계에서 법률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에 치중에 합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은 제정, 공포되었다. 그렇다면 반대로 청탁금지법을 지지하는 근거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적용대상의 문제에 대해 김영란 전 대법원장은 민간 분야의 부패 역시 심각하다는 점, 국민 여론이 긍정적이라는 점을 들어 청탁금지법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그는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가족범위를 배우자로만 한정된 것, 그리고 부정청탁의 개념이 다소 좁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둘째로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와는 달리 국민권익위원회가 현대경제연구원에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피해가 예상된 화훼산업에 대해서도 충격이 미미하고, 선물 수요도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고려해서 시장수요를 조사해보아도 선물수요는 많아야 0.86%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긍정적 효과로 기업 접대비 감소가 노동자의 임금 상승으

로 연결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하경제가 양성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현재 대한민국은 윤리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 상태에 빠져 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 해석이 수없이 의외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 언론사 차원에서도 취재 관행과 접대 문화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기관인 동시에 동법 위반사건을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중적 지위’에 놓여 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행정처분,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 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을 작성했다. 수사매뉴얼은 서면신고 원칙 등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사부서장의 지휘 하에 내·수사 실행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며, 수사과정에서 최소침해의 원칙을 준수하여 표적·과잉 수사와 자의적 법집행을 방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사권의 남용은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함정수사, 표적수사 또는 민간사찰이 자행되어선 안 된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모든 강제적인 경찰 작용은 다른 수단이 없을 때에,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도로 침해해야한다

는 엄격한 조건을 만족시킨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뇌물죄가 성립되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달리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족하다. 때문에 직무관련성, 대가성의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뇌물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실체적 진실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공정한 법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한국은 OECD 34개국 중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가 27위로, 경제 규모에 비해 청렴도는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정부패에 대해 반성하고 보다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비록 청탁금지법은 현재 과도기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반감을 가지기보다는 건설적인 방향을 도모하여 보다 성숙한 사회를 이룩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탁금지법과 같은 사후통제적인 수단이 발동하기에 앞서 정직, 청렴과 같은 가치가 환영받고 당연시되는 사회 풍토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2학년 박주안 기자
bjuan95@police.ac.kr〉

근절되지 않는 한국사회의 어두운 그림자, 갑질 문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위한 감정노동자법 입법 제안 이루어져

지난해 인천 남구의 한 대형백화점에서 점원 2명이 고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영상이 언론사에 제보되었다. 당시 무리한 무상수선을 요구하던 고객의 ‘갑질’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출처 : 유튜브 영상 캡처

▲ 작년 인천의 한 대형백화점에서 점원 2명이 고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있는 영상의 한 장면

오늘날 사회 곳곳에서 위와 같은 갑질은 종종 관찰된다. ‘갑질’이란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지칭하

는 표현이다. 초기 ‘갑질’이란 말은 상류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상류층의 특권意識을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주창장 안내요원을 무릎 꿇게 한 백화점 모녀 사건과 같이 갑질은 상류층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관찰되고 있다.

먼저 대기업과 상류층의 갑질은 세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먼저 ‘오너형 갑질’이다. 이는 제왕적인 기업대표, 경영진이 구성원 간의 극단적인 수직 관계에서 직원들을 하대하거나 폭언·폭행하는 유형이다. 다음은 남양유업 사태로 유명한 ‘밀어내기형 갑질’이다. 상품을 납부하는 기업이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강매하는 불공정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은 ‘열정페이’이다. 이는 무급 또는 최저시급을 밀도는 급여만을 지급하면서 장시간 노동하게 하는 형태의 갑질이다.

일반 사회에서 갑질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분야는 서비스업 분야이다. 정부에 따르면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500만~740만 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 10명 중 3~4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경제연구소가 작년 은행·카드회사의 콜센터와 영업장구 종사자 3천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한 달에 194회에



▲ 경찰청 공식블로그 ‘폴인러브’ 경찰 갑질문화 특별단속 포스터

달하는 무리한 사과 요구, 인격 무시, 욕설 및 폭언, 성희롱·성추행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다행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신문고 역할을 하고 갑질에 대한 법적 대응이 증가하면서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갑질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대 금융업권 협회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고객의 갑질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있으며 서울시는 공공부문 감정노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5월 국가와 사업주들이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정노동 종사

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비록 이는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으나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재추진하려는 노력은 끝나지 않았다. 노동계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20대 국회에서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성종 감정노동네트워크 실장은 20대 국회에서 전법위의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도 갑질에 제재를 가하고나서기 시작했다. 경찰청은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만연한 갑질문화를 청산하기 위해 100일간의 특별단속기간(9.1~12.9)을 발표했다.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TF가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각 지방청, 경찰서에서 2,069명이 활동 중이다. 경찰청은 갑질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권력형 비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 및 불공정행위, 인사 채용 비리, 블랙 컨슈머의 불법행위 이상의 4가지 단속대상을 중점으로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갑질 피해 사례가 발생해도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이 어려운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임금착취에 대해서는 사기, 갈취 등의 혐의를 적용

해 형사입건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계약상 부당행위 등 형사처벌 가능여부가 모호한 경우에도 민사사건으로 간과하지 않고 행정통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을 밝혔다.

갑질 단속 과정에서 내부 고발자 및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지책 역시 마련되었다. 조서를 작성할 시 피해자의 익명을 보장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피해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과 연계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지원하도록 한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갑질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체로서 배려하는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갑질은 상대방과 자신의 권력적 격차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경찰을 포함한 사회 각 분야의 갑질을 근절하려는 노력이 빛을 발해 사회 전반적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로써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갑질이 완전히 제거되기를 바란다.

〈2학년 박주안 기자
bjuan95@police.ac.kr〉

경찰대학, 태국 왕립경찰사관학교에 단기 교환학생 파견

2주의 기간 동안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가져

지난 6월 7일 경찰대학과 태국 왕립경찰사관학교는 각국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술교류 및 단기 교환학생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상대학교에 교직원과 학생들을 파견하여 교류의 장을 열었다. 경찰대학은 대학생 16명을 비롯하여 기획협력과장, 교직원 3명을 8월 15일부터 26일까지 태국 왕립경찰사관학교에 파견하였다. 첫 상호교류는 두 국가, 경찰교육기관 간의 경찰제도 및 교육체계, 나아가 문화·예술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 태국 왕립경찰사관학교 소개

태국 왕립경찰사관학교는 1901년에 세워진 육·해·공·경찰 4개 분과를 갖춘 종합사관학교를 모태로 한다. 1956년에 왕립경찰사관학교로 분리되어 Nakhon Panthom 주 Sampran으로 이전하였다. 2008년 법 개정으로 석·박사과정을 도입하였고, 이듬해에는 처음으로 여 생도 70명이 입학하였다. 학과과정은 크게 일반 경찰사관생도 과정(4년 학사과정)과 간부후보생 과정(8개월 단기과정-6개월 수업, 2개월 관서 실습)으로 이원화되어 각각 300여 명, 100~200여 명을 모집한다. 군대와 동일한 계급체



▲ 경찰대학 대표단과 태국 왕립경찰사관학교 지휘부

계를 가진 태국 경찰에서 모든 졸업생은 소위 계급으로 임관한다.

태국 왕립경찰사관학교의 교육이념은 치안현장에 필요한 경찰관의 양성과 지식의 창조라는 두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학문적 요소에 집중하는 편인 경찰대학과는 달리 전문기술적 요소를 상당히 강조하여, 폭동진압·전술사격·낙하산훈련·밀탐생존훈련 등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대외적으로는 경찰대학 이외에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등 인근 국가 경찰대학들과 상호위탁교육을 진행 중이며 중국 인민공안대학 및 운남경관학원과의 교류 중이다.

◇ 태국방문 세부일정

태국에 방문한 경찰대학 일행을 위한 프로그램은 크게 이론수업, 사격실습, 문화체험, 전문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론수업은 경찰과 인권, 과학수사의 두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과학수사 수업 후에는 설치된 범죄수사용 현미경 등의 최신 장비를 실제로 사용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격실습에서는 한국 경찰의 제식 권총인 38구경 리볼버 이외에도 자동 권총 및 산탄총 등에 대하여 교육하였으며, 각각 사용법과 안전 수칙 교육을 받은 후 사격장으로 이동하여 직접 발사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법학과 3학년 염웅수 학생은

“경찰대학 학생들에게 38구경 리볼버는 겨울 계절학기에 배정된 사격 수업에서 이미 다루어보아 익숙하였으나, 처음 접하는 자동권총이나 산탄총은 어색한 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직접 발사해보며 감을 익혀가는 과정과 특히 한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산탄총을 직접 쏜다는 것은 모두에게 매우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는 각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문화체험을 진행하였다. 12일에는 오전수업이 끝난 후 학교가 위치한 나콤포툼(Nakhon Pathom) 주의 동물원을 방문했다. 그리고 주말이었던 13일과 14일에는 각각 방콕과 파타야에서 주중의 피로를 푸는 시간을 가졌다. 방콕에서는 오전에 전담 안내원이 들려주는 설명과 함께 왕궁을 관광하였고, 오후에는 무에타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관람하였다. 다음날 파타야에서는 해변에서 다양한 수상 스포츠 활동을 즐긴 뒤, 태국에서 널리 알려진 전통공연을 관람하였다.

마지막 일정은 이틀간의 전략·전술 훈련으로 진행되었다. 사격장 3층에 마련된 모의 상황훈련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주된 내용은 인질이 붙잡혔을 경우의 행동 대처 방법과 2인 혹은 3인으로 조를 이루어 건물에 안전하게 침투하는 방법

이었다. 첫날 오전 실내 수업을 통하여 필요한 이론을 습득하고, 오후 수업부터 다음날까지는 실습으로 이루어졌다. 모형총을 들고 조를 짜서 건물을 수색하고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침투 작전을 연습한 뒤, 가스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하여 교수 요원들과 태국 학생들이 인질극을 벌이는 상황 속에서 인질을 구출하는 시뮬레이션 실습을 진행하였다.

법학과 2학년 이준영 학생은 “태국 사관생도들은 한국보다 훨씬 군사적이고 엄격한 분위기에서 열심히 생활한다. 2주 동안 그간의 나태한 자신을 반성했다”라며 태국 단기 교환학생에 파견된 소감을 남겼다. 또한 “견문과 시야를 넓히고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교환학생 경험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보배와도 같은 것”이라며 “이러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학교에 감사하며, 후배들도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잡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진행될 양국 간의 교류에서 경찰대학생들과 태국왕립경찰사관학교생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대에서 긴밀한 협력을 가지는 관계를 가지게 될 날을 기대한다.

〈3학년 심동영 기자
blackfeb22@naver.com〉

문화 경찰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립경찰교향악단



▲ 10월 21일 경찰의 날 어울림음악회에서 연주 중인 경찰교향악단 및 경찰국악단

◇ 국립경찰교향악단 소개

매년 10월 21일은 경찰의 날로서 이 날 경찰청에서는 국민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경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진행한다. 그중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국민과 하나 되는 어울림 음악회’에서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이는 국립경찰교향악단(이하 경찰교향악단)은 국가행사와 경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어 1981년 경찰의장대와 더불어 경찰 관악대로 출발하였다. 경찰교향악단은 경찰대학에 소속되어 30여 년 동안 용인에 위치하였고, 이후 1992년 오케스트라로 그 조직을 확대 및 개편하였다.

2016년 현재는 경찰대학 아산캠퍼스로 이전함과 동시에 국내 유수의 음악대학 및 외국 유명 대학에서 공부한 음악 특기생들 90여 명으로 정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다. 경찰교향악단은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전문 공연장에서의 콘서트

외에도,지방 순회 연주를 통해 환경적·지리적 요인으로 공연 관람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등 다양한 공익 활동으로 국민과 호흡하고 있다. 경찰교향악단은 경찰의 날 행사인 ‘어울림 음악회’를 비롯해서 정부 및 경찰 행사 연주회뿐만 아니라, 교향악 축제, KBS 송년 가곡의 밤 연주 등 3,600여 회에 달하는 연주실적을 쌓아 명실공히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교향악단으로 성장하였다. 경찰교향악단은 앞으로도 대중적이면서 폭넓은 레퍼토리로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와 문화 경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예정이다.

경찰교향악단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문준철 대원(수경, 29)을 인터뷰 하였다.

Q 경찰교향악단에 입단한 계기는?
입단하기 전 독일에서 유학 생활

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음악인이면 누구든 겪게 되는 군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러한 중에 경찰교향악단을 접하게 되었다. 입단하게 된 계기라 한다면 무엇보다 군대에서도 음악을 계속 공부하고 연습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고, 선후임 관계가 다른 군부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잘 조성되어 있다고 들었기에 입단하기로 마음먹었다.

Q 언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는지?

근래 사회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클래식 연주자의 대부분이 경찰교향악단을 거쳐 갔다고 한다.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에 일단 크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연주가 끝난 후 박수를 많이 받거나 관객들로부터의 호응이 직접 피부에 와 닿을 때 보람을 많이 느낀다.

Q 경찰교향악단 생활은 어떠한지?

의경들에게는 오후 6시 저녁시간 이후 ‘노터치 타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 이때는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정말 마음에 든다. 이에 더하여 소대장님이 대원들을 많이 배려해 주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악단 생활을 편리하고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다.

〈1학년 황연준 기자
duswns1643@police.ac.kr〉

제1회 청람 대학생 토론대회

성황리에 개최되어

지난 9월 8일, 경찰대학에서 청람 대학생 토론 대회가 개최되었다. 본 대회는 경찰대학생의 토론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이를 주관한 경찰대학 학사운영계에서는 대회를 개최한 취지로 오늘날 논리적 이해 및 전달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고 이에 능한 인재가 강한 역량을 발휘한다는 점, 그리고 토론 교육이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학사운영계의 토론문화 확산 추진 계획은 세부방침으로 토론 대회 개최 외에도 신규 교과목을 편성하고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것 등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 수업을 편성하여 학생들이 단계적으로 토론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며 학내 인문·토론 동아리인 ‘시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외부 토론 강사 초빙 및 인문 도서 구비를 통해 수업 외에도 토론 활성화를 기획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칼 포퍼식’ 진행 방식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 방식은 입론과 반박이 두 차례에 걸쳐 이어지며 결론을 짓지 않고 끝난다. 여기서 본래 팀 당 총 3명의 토론자가 참여해야 하지만 총학생회의 의견에 따라 2명씩의 토론자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변형되었고 중간에 배정된 자유 토론 시간 역시 재조정되었다. 총학생회 측은 참가학생 전원의 동등한 참여 기회 보장 및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 이 같은 진행 방식을 채택하였다.

올해 처음 개최된 본 대회는 지휘부, 교수,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한 총 6개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상위 8개 팀에 대하여 대상과 최우수상은 각 1팀, 우수상은 2팀, 그리고 장려상은 4

팀에 수여하였다. 학사운영계에서는 토론 대회를 연례행사화하여 경찰대학에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계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 대회에 참가하였던 말파이트 팀을 인터뷰하였다. 말파이트 팀의 1학년 김지수 학생과 송현민 학생은 이번 토론 대회 출전을 통해 느낀점이 많았다고 전했다.

Q 이번 청람 대학생 토론 대회에 출전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평소 관심이 없었지만 흥미를 끌기에 충분한 주제들에 대하여 폭넓게 공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고, 그렇기에 이번 대회에 출전하였다.

Q 토론 대회의 준비 과정은 어떠했나요?

뉴스와 신문 기사를 보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블로그나 칼럼, 혹은 학생들이 논문 설명 영상을 찾아보며 토론 주제에 대해 다각적인 정보를 얻고 생각해보려 노력했다.

Q 토론 대회를 참여하면서, 혹은 끝난 후 느낀 점이 있다면?

자료를 적절히 활용해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이러한 능력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밖에 길러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토론을 하는데 있어 사고를 유연하게 하여 어느 입장에서든 치우치지 않게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배웠다.

〈1학년 황연준 기자
duswns1643@police.ac.kr〉

세계로 뻗어나가는 경찰대학생, 그들이 전하는 생생한 수기

각국 치안 · 언어 · 문화 배우는 소중한 경험... 교환학생으로 새로운 시각 넓혀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경찰학교 교환학생 수기

◆ [행정학과 3학년 송민석]

저는 지난 학기에 독일로 위탁교육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교육을 받은 독일의 학교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이하 NRW) 주에 위치하여, 그 주의 이름을 따서 NRW 경찰학교라 불리는 곳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실무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비교하자면 우리 경찰대학보다는 국내의 경찰교육원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NRW 경찰학교의 정식 학기의 시작은 4월 말부터였기에, 독일에 미리 도착해있던 저는 학기 시작 전 약 6주간 어학원에서 어학수업을 받았습니다. 이는 독일 경찰학교에서의 교육이 대부분 독일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 학생의 신속한 적응을 돕기 위한 학교 차원의 배려였습니다. 사실 저는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동안 대학에서 독일어 교양 수업도 열심히 듣고, 학원에서는 인증시험을 준비하는 등 독일어 공부에 최선을 다했기에 상당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몸소 경험한 독일어는 한국에서 준비해온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학기 시작 전 현지 어학원의 교육 프로그램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독일은 주마다 경찰제도가 조금씩 다른데, NRW주의 경우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3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해의 교육은 이론-훈련-실습의 세 가지 분야가 조화를 이루어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저는 1년 차 과정에 편입되어 다른 독일 교육생들과 함께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교육 체계상 특별한 점은 어떤 훈련 수업이든지 간에 항상 수업 이전에 관련 이론 수업이 1-2시간 정도로 병행된다는 점입니다. ‘이론-훈련 교육 방식’은 학생들의 습득을 용이하게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이에 저는 이러한 방식의 국내 도입

을 언젠가는 꼭 검토해 보리라 다짐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은 사격, 수영, 체포술, 응급처치 등 매우 다양한 실무 과목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훈련을 체화한 뒤 그것을 ‘역할극’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이러한 NRW 경찰학교의 철저하게 실무 중심적인 교육 체계 덕분에 소중한 실무 경험도 쌓고, 꾸준한 학업 성취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짧다면 짧았을 시간이었지만 모교인 국내 경찰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 경찰체포술 수업 때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독일로 교환학생을 가고자 마음을 정한 것은 학교 입학 당시인 34기 청담교육 때였습니다. 당시 선배들이 설명해주신 우리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큰 흥미를 느낀 것입니다. 한 학기 동안 일상이 된 학교를 떠나 외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의 우수한 치안사례를 몸으로 느끼며 그것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학과 위탁교육협정을 맺은 국가는 독일 외에도 많았지만 독일은 선진국 대열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었기에 독일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목표를 정한 뒤로는 바쁜 학사 일정 중에도 교환학생 지원을 위해 틈틈이 노력했습니다. 우선 대학에서 진행되는 독일어 교양 수업을 2년간 꾸준히 수강했습니다. 또한 학과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학기 중에는 주말을, 방학에는 학원수강을 통하여 모자란 공부량을 채웠습니다. 지원하는 데 쓰일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어학 능력 인증시험

도 응시했고, 교내 지휘부에 출마해 교환학생으로서 필요한 기본 자질을 기르는 노력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의 제 대학 생활은 독일 교환학생 준비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대학 교환학생 제도의 이점을 알았고 그만큼 간절히 선발되기를 원했기에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부단히 노력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얻는 것이 있다면 반대로 잃는 것도 있다지만, 저는 한 학기를 독일에서 보낸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고 자부합니다. 미래에 교환학생을 꿈꾸는 후배 학생들이 있다면 노력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웨스턴 캐롤라이나 대학 교환학생 수기

◆ [행정학과 4학년 정한비]

우선 웨스턴 캐롤라이나 대학교(Western Carolina University, 이하 WCU)는 형사 사법학으로 유명한 ‘일반’ 대학에 해당합니다. 즉 특수목적 대학인 경찰대학과는 사뭇 다른 학습 환경으로서 자유분방함, 개성 등 일반대학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면 항상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검열하곤 했었던 저와는 달리, 이 곳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주저 없이 도전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얻으려 노력하는 것이 당연시 되던 이곳의 분위기에, 주저하면서 제자리에 머물고 있던 스스로를 많이 되돌아보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WCU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세계 여러 국가의 대학들과 위탁교육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국가와 인종, 종교의 외국인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세상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몇몇 종교와 인종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비합리적이었는가를 몸소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가 WCU에서 교환학생으로 생활한 시간은 한 학기라는 짧은 기간이

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경험들은 한국의 일상생활에 젖어있던 제게 이루 말할 수 없이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3학년 2학기, 미국으로의 위탁교육파견은 제 대학생활의 전환점이었고,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 WCU 미식축구 경기기념 공연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고 새로운 경험들로 채워 넣을 수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에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보다 많은 후배들이 이 수기를 읽고 교환 학생에 주저하지 않고 도전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대학생활 한 페이지를 알차게 채워줄 것이라 믿습니다.

말레이시아 말라야 대학 교환학생 수기

◆ [행정학과 4학년 조준호]

경찰대학에 입학하면 선배들로부터 동아리, 기관, 여행, 영어 등 이른바 ‘어떻게 학교생활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무수히 많은 조언을 듣게 됩니다. 저 또한 신입생 시절 졸업하기 전에 교환학생을 가고 대학원에 진학해야겠다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입학 후 시간이 흐르며 가치관이 조금씩 변하여 대학원 진학보다는 기동대 근무를 선택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지만, 교환 학생에 대한 꿈은 여전했습니다. 2학년 때 중국인 교환학생의 멘토로서 같은 생활실에서 함께 지내며 더 넓은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여러 국가와 인접해 다양한 나라를 여행할 수 있고, 많은 문화가 공존하는 말레이시아의 말라야 대학으로 해외위탁교육을 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말라야 대학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국립대학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한다면 서울대학교와 그 성격이 유사합니다. 말라야 대학의 가장 큰 장점은 경찰대학과는 달리 일반 대학이라는 점입니다. 일정한 규칙과 위계가 존재하는 경찰대학과는 다른 특색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실제로 말라야 대학에서는 인문학에서부터 사회학, 공학, 의학, 자연과학, 예체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학부가 각자의 정체성을 띄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라야 대학에서 우리 대학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Lighting for Performances', 'Malay Folk Dance', 'Tai Chi' 등을 수강했습니다.

말라야 대학교에서 보고 느낀 것 중 가장 인상에 남았던 점은 도서관의 크기가 경찰대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5층 정도의 넓은 공간에 각종 분야의 전공 서적들이 가득합니다. 게다가 항상 도서관에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학생들이 도서관 또는 학원에 가득한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또한 말라야 대학교에 학생들은 상당수가 무슬림인 이유로 술을 기피합니다.

교환학생으로 있는 한 학기 동안 주말과 짧은 방학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의 유명 관광지부터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 등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말라야 대학이 위치한 쿠알라룸푸르로부터 가까운 국가들이라 항공비가 저렴하여 부담 없이 여행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클리셰이지만 여행은 역시 많은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출타동기(哮喘同機)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선 병아리도 안에서 껍질을 툭툭 치고, 어미 닭이 밖에서 이를 마구 쪼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환학생의 특별한 경험이 어미 닭의 탁(啄)이 되어 우리가 자신만의 세계를 깨고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학년 홍재의 기자 hongjaeui@police.ac.kr〉

몰카 · 테러 · 마약 밀반입... ‘골칫덩이’ 드론 범죄, 대책 마련 시급

지난달 런던에서 무인 비행 장치인 드론을 이용하여 아이들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소아성애자들이 놀이터를 촬영하고, 같은 방법으로 관음증 환자들이 몰래 침실을 엿본 사실이 알려져 영국 사회에 큰 파문이 일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한 온라인 매체인 인디펜던트는 드론 이용 범죄가 2014년 94건에서 2015년 425건으로 4배 넘게 급증했으며, 2016년 5월까지 접수된 수만 무려 272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드론 범죄’는 비단 영국만의 문제만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4월 방사성물질이 담긴 용기가 부착된 드론이 총리 관저 옥상으로 침입하는 사건이, 미국에서는 소형 드론을 이용하여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마약, 총기,

담배, 포르노 비디오 등을 공급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드론이 민간에서도 상용화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유례없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드론 상용화가 세계적 추세인 만큼, 국내의 경우도 드론 범죄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올해 3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조경량 비행장치(드론) 신고 및 항공법규 위반 현황'에 의하면, 정부에 신고한 드론 수는 2014년 352대에서 지난해 905대로 약 2.6배 증가했고, 그에 따라 자연히 드론 관련 위법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드론 사용자의 항공법규 위반은 2014년에는 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7건으로 약 5.7배 폭증했다.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

지역에서의 허가받지 않은 비행이 12건, 야간 등 비행금지 시간대 비행이 7건, 사고가 났음에도 발생 사실을 미보고한 경우가 1건이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위반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방항공청의 조사를 거친 뒤,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열려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뿐이다.

이처럼 문제는 현행법 체계상 드론과 관련해서는 항공법규 외에 별도의 규제법이 없다는 점이다. 안전사고나 사생활 침해 분쟁이 발생하면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의 법률로 따져야 하는 실정이다. 관리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용 드론은 정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비사업용 12kg 이하의 드론은 신고 의무도 없다. 또한 비행금지

구역 및 관제권 등 일부 지역 외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다.

드론의 상용화가 진행될수록 드론을 이용한 법규 위반 행위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해외의 극단적인 위법 사례와 같은 테러, 마약 밀반입, 군사시설 무단 촬영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하루 빨리 날로 발전하는 드론 기술에 발맞추어 관련된 법적·제도적·기술적 대처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위법한 드론의 사용에 대응하여 드론의 조종을 방해하는 방해전파, 드론을 잡는 그물이 달린 드론 등 기술적으로 다양한 측면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몇몇 국가는 독특한 대응 방안을 내놓기도 하는데, 일본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드론을 잡는 데 훈련된 독수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국내 드론 시장 규모는 지난해 154억 원에서 올해 278억 원, 내년 556억 원, 2019년에는 1천억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높은 성장세에 따라 드론 관련 범죄사건·사고도 같이 증가할 것은 당연지사이다. 문명의 이기에는 항상 명암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보건대, 바로 지금이 드론 기술 발전의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시점임을 알 수 있다.

〈2학년 홍재의 기자 hongjaeui@police.ac.kr〉

“사회공헌에 앞장서겠습니다.” 김희석 경찰대학 총동문회장

김희석 16대 경찰대학 총동문회장은 2기 졸업생이자 미국 주재관으로 근무하다 총경으로 퇴직하였다. 현재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에서 8년째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다양한 경험을 위해 행정고시·해외유학·박사학위·해외주재관 등 여러 분야에 도전하는 등 다양성과 공감이라는 화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그는 국민과 국가로부터 받은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공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총동문회의 역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총동문회의 역할은 회칙에 잘 나와 있습니다. 졸업 동문간의 친목 도모, 경찰대학 그리고 경찰의 발전, 나아가 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학생들에게 매년 지원을 하는 것도 총동문회 설립 목적에 “경찰대학”의 발전 항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 동문회와 다른 점은, 설립 목적에 “사회공헌”이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일반 대학과는 조금 “다른” 대학을 졸업했고, 국민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 시민(퇴직경찰)이 포함된 민간단체(대학동문회)임에도, 그 동안 받은 사랑과 관심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단체 설립 목적에 넣은 것입니다.

2015년 3월, 제16대 총동문회가 출범한 이후 많은 일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동문들 복지를 위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①미혼 동문들을 위해서는 결혼정보업체 (주)듀오와 협약을 맺어 보다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②자녀를 키우는 동문들을 위해서는 진로,학습방법,취업캠프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③퇴직을 앞 둔 동문들을 위해서는 평생 경력관리 주치의 프로그램 등 제2의 인생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문들간 소통을 위해 졸업 동문 소식 웹진 『늘푸른 트락』을 발간하고, 홈페이지와 앱을 개편하기도 했으며, 총동문회 통합 휴대폰 번호 (010-4879-8316)를 만들어 누구나 편하게 SMS, 카카오톡 등으로 편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문자나 카카오톡 보내보세요. 빠르고 친절한 답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원활한 동문회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확충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각 졸업기수의 연간 분담금은 물론, 총경 이상 승진 동문과 사회(퇴직)동문들의 후원금 모금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다 탄탄한 동

문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재원이 재학생 후배들에게, 또 전체 동문들의 복지와 자긍심 제고,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총동문회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회공헌활동을 특히 강조하고 계신데, 그 일환으로 추진된 캄보디아 초등학교 건립과 히딩크 재단과 함께 하는 『드림 축구캠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찰대학도 우리 총동문회도 이제 장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는 만큼,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을 되돌려 주고 더불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전통을 만들어 가야합니다. 이 부분에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구분이 없을 것입니다.

사회공헌부를 새로 만들고 활동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교육분야가 가장 확실하고, 효과가 높으며 동문회 성격에도 가장 잘 부합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을 주된 활동분야로 결정했습니다.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능력 있는 파트너를 선정, 협업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과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복지사업과 시각장애인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스 히딩크 재단이 국내 파트너입니다.

해의 사회공헌사업 파트너는 대하



▲ 김희석 경찰대학 총동문회장(오른쪽)

생들에게 유명한 (주)코피온인데, 현재 캄보디아 빈민지역 초등학교 증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졸업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여 건축대금 대부분을 모금하였고,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어 내년 1월경에는 준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의 해외봉사활동도 그곳에서 이루어지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재학생 후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경찰대학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고전 소설 중 ‘그리스인 조르바’를 참 좋아하는데요, 조르바는 비합리적으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결정하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 누구보다 주체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는 정말 멋진 자유인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조르바를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너무 많은 부분이 불명확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저는 후배 여러분들이 이런 삶 속에서 기존의 지식이나 생각에 기대지 않고, 그 순간을 조르바처럼 주체적인 의식과 판단을 가지고 무엇보다 머리에 기대는 것이 아닌 온몸으로 부딪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유의식과 도전정신으로 똘똘 뭉친 후배들이 이 사회를 더 멋진 방향으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2학년 김지수 기자 diamond4023@police.ac.kr〉

통신수사에 관한 모든것, 수사기획과 김지온 경감에게 묻다

‘통신수사’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통신수사란 범인 검거 및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범죄수사 기법 중 하나로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통신자료, 통화내역 등의 통신정보를 제공받아 진행하는 수사방식입니다.

통신사실의 확인, 모바일메신저 감청, 위치추적 등 통신수사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모든 통신수사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해서 범위와 한계가 결정지어 집니다. 통화내역은 보관기간이 보통 1년이며, 위치추

통신수사와 관련하여,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 꼭 개선되어야할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통신수사 환경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살인, 강도, 보이스피싱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수사를 위해서 통신수사가 필요하고,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 되어 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수사기법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특히 법제도적 또는 기술적 제약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스마트폰 감청’, ‘실시간 GPS 위치정보 추적’, ‘WIFI 맥어드레스 정보 수집’은 향후 꼭 필요한 수사기법입니다.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그간 경찰생활을 하면서 크게 느꼈던 한 가지는 ‘무엇이 되느냐 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입니다. 최근 읽었던 헤민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책을 보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는 것은 내 자아의 활동이고 내가 옳은 것을 아무리 증명해도 결과적으로 아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행복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라는 문구를 후배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2학년 김지수 기자 diamond4023@police.ac.kr〉

‘다름’이 소통의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이창호 관장



▲ 이창호 관장(아산시장애인복지관)

2016년 전국체전과 함께 충남 아산에서 개최된 ‘전국장애인 체육대회(10. 21.~25.)’는 스포츠에 대해 우리가 가진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창호 아산시장애인복지관 관장이 있었다. 본인 스스로 장애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아픔에 대한 공감을 통해 장애인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는 현재 아산시에 사는 1만 5천여 명의 장애인들의 역량 강화와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장애인 복지’라는 보람찬 업무에 종사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장애를 입고 좌절하고 있을 당시, ‘지체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라는 장애인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많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장애인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모습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장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사자 및 가족 구성원을 만날 때입니다. 비록 장애가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일이라 할지라도 장애를 같이 수용

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화 과정에서 각종 질병이나 재해로 장애 인구가 급증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원인이 있다면 이를 제도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장애인들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장애를 잘 극복하여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가 더는 장애로 분류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장애인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은 몸이 불편하므로 사회생활에 있어 약간의 위험과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에 좌절하기보다는 적응하기 위해 즐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운동이든 일상생활이든 두려워하기보다 일단 사회로 나와서 많은 장애인과 서로 소통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활동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다른 많은 장애인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 함께 활동했으면 합니다.

1학년 신유정 기자 <sinnew1092@police.ac.kr>

통신관련 정보 수사방법 비교표				
구분	통신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감청)	전기통신 압수수색영장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제6조 제2항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압수수색,검증)
내용	이용자의 성명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이용자의 주소 이용자의 전화번호 이용자의 아이디 이용자의 가입일, 해지일	가입자의 전기통신 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등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사용 도수 인터넷의 로그기록 자료 발신기지의 위치추적자료 접속지의 추적자료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이메일 내용 SNS 대화내용
대상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요건	수사관서장 명의 요청 다음 네이버 등 일부 인터넷 포털업체는 압수영장 요구	법원 허가서 필요	법원 허가서 필요	법원 영장 필요
통지	통신사 통해 수사기관 제공현황 열람(정통당법)	기소·불기소, 내사종결 처분시 30일내에 통지	기소·불기소, 내사종결 처분시 30일내에 통지	기소·불기소, 내사종결 처분시 30일내에 통지

수사를 하는데 있어 통신수사가 꼭 필요한 경우는 언제입니까?

통신수사는 모든 수사의 기초이자 기본입니다. 살인, 성폭력, 마약 등 강력사건에서부터 지능범죄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꼭 필요한 수사 방식입니다. 최근 이동통신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보이스피싱 등 통신활용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통신수사 활용도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현행법상 기지국 위치정보만 받을 수 있습니다. GPS 위치정보의 경우 경찰은 긴급 구조 상황에서만 활용하고, 수사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 감청은 대표적으로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메신저 내용을 실시간으로 줄 수 있는 장비가 통신사에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감청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압수수색영장을 통해서 2, 3일 정도 기간에 한해 통신사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메신저 내용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KT & G 캄보디아 해외봉사단 파견

글로벌 리더의 역량을 갖추는 계기 되어

방학이 되면 경찰대학생들은 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정신을 배우고 스스로의 인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르기 위하여 국내 및 해외의 많은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이에 경찰대학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이 더욱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KT&G 복지재단과 함께 캄보디아로 해외 봉사단을 파견했다. KT&G 복지재단은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20차례에 걸쳐 4백여 명의 대학생 해외 봉사단을 파견해 왔으며, 경찰대학생들은 이에 호응하여 해외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경찰대학은 봉사활동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10명의 학생을 어학 점수, 학과 성적, 학교생활 태도 등 다양한 측면의 서면 서류와 면접을 통해 선발했다. 이렇게 선발된 10명의 경찰대학 재학생과 KT&G 복지재단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20명, 그리고 지난 5월 KT&G가 공모를 통해 선발한 10명 등 모두 40명의 대학생이 캄보디아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모두 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현지에 가서 학생들에게 수업할 내용, 그리고 야외에서 진행할 운동회와 귀국 후에 가지게 될 사진전 등에 대한 5~6개의 계획서를 작성했다.

계획서에 대한 수정과 피드백을 수시로 받고, 교육봉사에 대한 리허설도 받아 보다 완벽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봉사활동을 떠났다.



▲ 바람개비를 만든 2학년 김영진 학생과 아이들

봉사활동은 7월 13일부터 7월 25일까지 12일 동안 캄보디아 시엠레아프(Siem Reap) 주 외곽의 푸억(Puok) 지역偏僻 초등학교에서 진행되었다. 봉사단원들은 현지에서 활동 중인 시민단체(NGO)와 함께 2주간 학교 시설 건립 및 보수, 위생교육 봉사활동을 펼쳤다. 학생들이 했던 봉사는 '교육봉사'와 '노력봉사'였다. 교육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偏僻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수업을 하며, 기본적인 위생 교육을 알려주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려주는 수업과 체육수업 등을 진행했다. 노력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초등학교 도서관을 짓

는 봉사를 주로 했는데, 직접 벽돌을 나르고 흙을 쌓고 벽화를 그리며 새로운 도서관을 짓고, 기존의 학교 건물에 페인트칠을 하면서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학생들은 아침 식사 직후부터 교육봉사와 노력봉사를 하고 저녁 식사 후 봉사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는 식으로 일정을 진행했다.



▲ 3학년 장현수 학생과 아이들

그러나 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들도 있었다. 캄보디아의 날씨가 매우 고온다습하고 일정이 매우 고강도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력에 큰 부담이 되었다. 봉사 이후 그 날 봉사에 대한 피드백과 다음 봉사에 대한 회의를 하느라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고, 다음 날 아침 5시 30분에 기상해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항상 수면시간이 부족

했다. 또, 학생들이 봉사를 했던 지역은 수질이 좋지 않아 학생들은 항상 물이 부족한 상황을 겪었고 봉사 막바지에는 물을 먹고 배탈이 나는 '물갈이'를 겪어야 했다. 이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 교감하고 뛰놀며 많은 힘을 얻었고 마지막 날까지 무사히 봉사를 마칠 수 있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3학년 장현수 학생은 “일단 삶에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맑은 아이들과 지내다 보니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아등바등하며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봉사에 참여했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다 열린 시야를 갖추게 되었고, 뛰어난 재능이 많은 다른 대학 학생들을 보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졸업하고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이 점이 이번 봉사활동에서 얻게 된 제일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이번 봉사활동이 지금의 삶과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2학년 김영진 학생은 “저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사소한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지금의 삶이 얼

마나 행복한 삶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남을 돕는 일이 그리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고, 작은 노력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서관을 짓고 책을 기증한 활동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다른 활동들도 보람찼지만, 도서관과 책은 오랜 시간 동안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에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이번 기회에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해외봉사활동을 갈 수 있어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을 기획한 KT&G 복지재단의 권오중 홍보팀장은 “오랜 내전으로 지친 캄보디아의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10년 넘게 이어온 지원 사업이 캄보디아 국민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경찰대학생들이 국내봉사활동과 더불어 이번 활동처럼 더 많은 해외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기함과 동시에 해외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학년 양승훈 기자
pablo2454@police.ac.kr〉

같이했기에 ‘가치’가 남달랐던 경찰간부후보생과의 벽화봉사

지난 5월 29일 충남 아산 배방 구령 2리 마을에서 경찰대학 학생 15명과 경찰교육원 경찰간부후보생 15명이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 봉사활동은 경찰의 미래를 양성하는 두 기관에서 합동으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월에 거행된 합동임용식 때를 제외하고는 서로 접촉하거나 연락할 기회가 없었던 그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봉사활동은 타 활동들에 비해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찰대학의 아산 이전 이후 처음이었던 벽화봉사라는 점에서도 특별하다.

이번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은 경찰대학 폴라리스(Polaris) 봉사단에 의해서 기획·운영되었다. 봉사단장인 경찰대학 3학년 강유진 학생은 이번 활동을 기획한 의도에 대해서 “경찰대학이 아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교육원과 매우 가까워졌는데 용인에서는 이러한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경찰간부후보생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획했다”라고 말했다. 벽화봉사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경찰간부후보생들은) 다들 따뜻했고,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자 먼저 다가 왔으며, 재치 있는 입담을 통해 서로의 간격을 좁힐 수 있었다.” “합동임용식 이후에는 마주칠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기회로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고 연령대가 높은 만큼 경찰대학생들보다 조금더 성숙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았다.”와 같은 답변 등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약간은 경찰간부후보생에게 심리적인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처



▲ 벽화를 완성하고 보람찬 표정을 짓는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들

음 만난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어색함에서 비롯된 태도였다는 것을 깨닫고 형·동생처럼 정말 편하고 잘 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와 같은 독특한 답변도 있었다.

봉사단장 3학년 강유진 학생은 이번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이 경찰대학의 아산으로의 이전 이후 처음 이루어진 벽화봉사활동이라 봉사 수요처의 물색과 봉사단체로의 등록과 같은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더욱이 경찰간부후보생들은 외출이 제한적이라서 실질적인 봉사 기획에서의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함께 일을 함으로써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특히 뒤쫓이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게 되면서 다양한 이유로 부족했었던 소통이 잘 이루어진 것 같았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힘들고 지친다는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식의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봉

사 이외에도 다른 활동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경찰대학 폴라리스(Polaris) 봉사단은 2학기 중에도 경찰대학 학생·경찰간부후보생 합동 봉사활동을 하나 더 기획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고, 그 종류는 김장 봉사나 연탄 봉사, 근처 소망원에서의 봉사가 될 것 같다고 한다. 현재 경찰대학 학생들은 멘토링(Mentoring) 봉사활동,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 춘천 사랑의 집 봉사활동 등과 같이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이번 봉사활동과 같이 경찰간부후보생을 비롯하여 다양한 외부인들과 함께 하는 활동들을 추가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경찰대학 밖의 사회를 체험하면서 유익한 경험을 해보는 기회가 늘어났으면 한다. 그리고 이러한 봉사활동들을 통하여 대학 생활에 한정되지 않고 더 나아가 참된 경찰의 의무와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1학년 김용재 기자
kyjkjh12@police.ac.kr〉

경찰대학생의 따뜻한 재능기부, 멘토링 봉사활동

경찰대학생들은 일과시간 후에 지역 사회 청소년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 멘토가 되는 재능 기부 봉사활동을 한다. 총 70명의 경찰대학 학생들은 구세군지역 아동센터·꿈자리 아동센터·낮은 울타리 아동센터·신창지역 아동센터·비전1318 아동센터·우리들 아동센터·키움 지역아동센터·푸른들 지역아동센터에서 매주 월·화·수에 멘토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멘토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은 봉사단에서 직접 선발하며, 긍정성을 위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단, 멘티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멘토와의 적응을 위하여 같은 센터에 연속으로 지원하는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이렇게 선발된 학생들은 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공부했던 경험을 살려 멘티들에게 올바른 학습방법을 가르쳐 주게 된다.

경찰대학 학생들은 대학 캠퍼스가 용인에 있을 때부터 꾸준히 지역사회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작년까지는 경찰대학 학생과 지도실 차원에서 학생들이 멘토링 봉사활동을 나갈 교육센터를 연결해주었지만, 올해 아산으로 캠퍼스를 이전하면서 인성센터의 지원하에 학생들이 멘토링 봉사활동을 할 수요처를 물색했다.

경찰대학 봉사단 학생들이 직접 아산지역의 아동센터들과 경찰대학 학생들을 연결해주었고 대부분의 멘토링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했다. 봉사단 학생들의 노고로 경찰대

학 학생들은 아산 소재 6곳의 지역 아동센터에서 멘토링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봉사단의 멘토링팀에서 봉사활동을 기획·운영한 2학년 김우진 학생은 “경찰대학에 들어오기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들과 저만의 학습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봉사단에서 멘토링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결과 더욱 보람찼고 아이들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동심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멘토링 봉사활동이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고, 특히 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연결했기 때문에 더욱 보람찼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멘토링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초등학교 6학년 박준용 군은 “선생님이랑 밖에 나가서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같이 공부도 해서 좋았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서 공부도 더 잘된 것 같고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선생님이랑 공부하고 싶어요.”라며 멘토링 활동이 아이들의 학습에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해 주고 지역사회의 아이들과 학생들이 더욱 교감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한편 인성리더십 센터와 경찰대학 봉사단은 2017학년도에도 인근 지역 아동센터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학생들의 학습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학년 양승훈 기자
pablo2454@police.ac.kr〉

‘증강현실’ 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우려

‘포켓몬 고’를 통해 본 증강현실 기술

2016년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포켓몬 고(Pokémon GO)’가 큰 관심을 받았다. 포켓몬 고는 일본의 닌텐도 사(社)가 만든 게임 ‘포켓몬스터’에 미국 실리콘 벨리의 나이앤틱 사(社)의 증강현실 기술이 접목된 모바일 게임이다. 7월에 출시된 포켓몬 고는 두 달 넘게 미국 앱 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유지하였다. 포켓몬 고의 성공으로 증강현실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증강현실 기술은 어떻게 활용될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

● 증강현실 기술의 개발

1968년 이반 서덜랜드(Ivan Sutherland)는 최초로 HMD(Head-mounted Display, 머리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컴퓨터의 일종)를 개발하면서 초보적 단계의 증강현실 기술을 최초로 고안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일반 사용자도 HMD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게임기 수준으로 상품화 되었다. 2010년대에 들어 구글(Google)사에서 ‘구글 글라스’(Google Glass)를 개발하면서 이제는 스마트 안경으로 상품화 되고 있다. 구글 글라스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이다. 구글 글라스는 이용자가 보고 있는 풍경을 촬영할 수도 있고, 길 안내도 제공하고, 보고 있는 사물을 그 자리에서 인식하여 검색을 할 수도 있다. 2014년 큰 관심 속에서 출시되었지만 보급 수준이 아닌 실험용 베타 수준이어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스마트 안경은 계속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 증강현실 기술의 활용 가능성

증강현실 기술의 핵심은 기계가 현실을 인지한 후 이를 정보화하고 이에 맞추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강현실 기술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

첫째로, 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스마트 안경을 사용하면 수술 중 손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도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 또한, 손이 바쁜 와중에도

메시지를 읽고 다른 의사에게 수술 장면을 보여주며 상의할 수 있는 등 의료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둘째로, 교육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증강현실 기술은 빠른 정보 수집과 이해도 높은 교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별자리 교육 중 카메라로 밤하늘을 비추고 화면에 나타난 풍경에 별자리 이미지와 설명이 나타나게 한다면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 안전 문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상품은 여러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첫째로, 안전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대표적으로 구글 글라스는 안전성의 문제를 많이 지적받았다. 운전을 하는 중 눈앞에 있는 화면에 메시지 등이 뜬다면 주의가 분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유행하는 포켓몬 고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상당히 늘고 있어 각국이 예의 주시하는 중이다.

둘째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다.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한 상품은 개인의 위치 정보 및 영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중요한 개인 정보이다. 이런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 된다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대학 법학과 장인호 교수는 “목적 외의 수집, 오남용 및 이를 이용한 감시·추적에 따른 폐해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 상품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각종 산업 발전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 적절한 규제와 자유로운 기술개발 사이에서 균형을 도모할 때 기술은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학년 김우진 기자
woojinkim@police.ac.kr〉

〈외부 기고〉

이슬람 문화의 이해

편견과 실체사이에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같은 점과 다른 점

두 종교 모두 같은 유일신 신앙의 뿌리에서 출발하여 아브라함을 공통조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받아들이는 모습도 비슷한 양상을 띤다. 물론 이슬람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아들, 즉 신격으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본질적으로 그 갈래를 달리 하게 되었지만, 예수를 오류를 범하지 않는 최고의 인격체로, 나아가 최상의 예언자로 받아들이고 추앙한다. “성녀 마리아의 몸에서 남자와의 접촉 없이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 예수가 탄생했다”고 꾸란(Quran)은 기록하고 있다(꾸란 3:47). 나아가 예수께서 하느님의 권능으로 행한 기적사실들이 세세하고 감동적으로 꾸란에 묘사되어 있다. 다문화·다종교공존의 시대에 두 종교가 다름을 줄이고 같음을 확산함으로써 화해하고 상생하는 길은 없을까?

●이슬람,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는가?

이슬람(Islam)의 언어학적인 어원은 ‘평화’이고, 신학적인 의미는 ‘복종’이다. 이슬람 사상의 핵심은 알라(유일신)에게 절대복종함으로써 내면의 평온과 지상의 평화를 얻는 것이다. 꾸란에 알라는 네 가지의 기본속성을 지닌다. “절대성, 전지전능, 유일성, 우주 삼라만상을 있게 한 창조성”이다. 그렇지만 이슬람에서는 기독교에서처럼 십자가 대속(代贖)이나 부활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과 신의 직접 교통을 통한 현세의 삶과 내세의 영생을 강조한다. 즉, 신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선행을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신앙생활이 된다. 하루 다섯 번의 예배(살라트), 한 달간의 단식(라마단), 자기 순수입의 2.5%를 가난한 사람에게 희사(자카트), 그리고 평생

에 한 번 메카를 성지순례(하즈)하는 것을 기본 의무로 하고 있다. 믿음 체계에 있어서도 무슬림들은 유일신 알라에 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이전 선지자들이 받았던 성서, 천사의 존재, 내세와 최후의 심판일, 특히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움직임과 사건들이 신의 의지대로 일어나지만, 인간이 부여받은 이성과 자율판단의지로 스스로 일정 부분 책임을 진다는 정명론(定命論)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한 손에 칼, 한 손에 꾸란의 명령

일찍이 서구인들은 적들인 무슬림들이 행한 정복사업을 소위 ‘한 손에 칼, 한 손에 꾸란’이라 표현했지만, 이는 지나친 과장이다. 이슬람교는 발생초기부터(610년) 급속히 전파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비잔틴과 페르시아 제국의 300년 전쟁과 경제적 착취에 시달리던 주민들은 이슬람의 진출을 오히려 환영했다. 특히 이슬람 정권은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해 25% 정도의 토지세를 내는 조건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했으며, 개종자에게는 추가로 약 10% 정도의 인두세를 추가로 면제해 주었다. 이러한 정책이 고통에 시달리던 주민들에게 대량개종의 길을 열어 준 셈이다. 세금도 비잔틴이나 페르시아의 가혹한 강제 징수에 비하면 훨씬 가벼웠음으로 이슬람 통치 하에서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들은 상당한 종교의 자유와 경제적 기득권을 향유할 수 있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인식의 주체로서 이슬람 세계를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97%에 달하는 나라로서 이슬람권 이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다.

이 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대학생 독서감상문 기고〉

백범을 부르며 꽃을 피우다

본관은 안동(安東). 아명은 창암(昌巖), 법명은 원종(圓宗), 자는 연상(蓮上), 초호(初號)는 연하(蓮下), 호는 백범(白凡). 본명은 창수(昌洙), 개명하여 구(龜), 다시 구(九). 김구. 백범의 삶을 함께하며, 그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눈을 마주치며, 넘겨간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서 그는 참 많은 낮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민족의 지도자라고 당연시하는 그의 이름들이 부유하며 내 머릿속에는 어느새 하나의 시가 떠올랐다. 한국인이 라면 모두 여러번 곱씹어 보았을 김춘수 시인의 ‘꽃’ 이었다.

문득 돌아보니 나는 그리고 우리는, 이제껏 그가 지닌 수많은 이름을 제대로 불러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책장을 넘기면서 이제는 그의 몸짓들이 나의 시선을 만나, 나의 부름을 만나 비로소 꽃이 피었다. 그가 해냈던 수많은 업적들, 그의 숨결이 생생히 묻어있는 삶을 바라보고 나의 두 눈을 마주치며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야,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눈짓이 되었다.

국사교과서 속에서 그저 정지하여 부유하던 그의 이름은 더 이상 활자로 떠있지 않았고 어느새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의 이름을 제대로 마주하고 부를 수 없었다. 독립 운동가들을 논할 때 어렵듯이 생각하는 그들의 상(象)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단한 위인들은 평범한 나와는 출생부터 뭔가 조금 다른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속단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지만 이상했다. 그러한 판단으로 그들을 경외할수록 내가 그들을 알아가기는커녕 나는 점점 보잘것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유의 알 수 없는 무기력함.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400페이지가 넘는 책장을 순식간에 읽어냈을 때, 이제야 그들을 마주하고 부를 수 있었다. 그들은 곧 우리였고, 우리도 곧 그들이었기에.

그는 일반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가락을 부러뜨려 엿을 사 먹고, 장맛날 빨강 파

랑 물감을 시냇가에 풀어 어우러지는 모양을 구경하던 장난꾸러기에 불과했다. 천한 출신이 싫어 진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던 어린아이가 장차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으로서, 구국자로서 서게 되는 데는 대단한 결단과 영웅의 행동만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다.

우선, 그는 과거장의 악폐를 보며 공부를 포기하고, 좌절을 벗어나고자 스스로의 관상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얼굴과 몸에 천격, 빈격, 흉격 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고 비관에 빠졌다. 하지만 〈상서〉의 ‘상 좋은 것이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相好不如身好 身好不如心好)’는 구절을 보고, 그는 상 좋은 사람보다 마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한 결단이 ‘모든 악을 짓지 않고 많은 선을 행하는’ 동학에 다가가 비로소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쓰게 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그는 뜻을 갖는데 멈추지 않고 곧고 바른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단이 있었다. 이러한 과단

은 어렸을 적 고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항상 좌우명으로 새기고 있었던 문장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가지 잡고 나무를 오르는 것이 그다지 대단할 것은 없다. 벼랑에 매달려 잡은 손을 놓을 수 있어야 장부라 할 수 있다.(得樹攀枝無足奇 懸崖撒手丈夫兒)’는 구절이 실천가로서의 용기를 품게 한 것이다.

철부지 시골소년이 숭고한 위국헌신의 화신으로 기억되게 한 것은 그가 마음에 새기고 담아두었던 두 가지의 짧은 구절들이었다. 올곧은 뜻으로 명석하게 보고 잘 판단하며, 그에 멈추지 않고 스스로 옳다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 바로 이것이 이후 그가 살면서 몇 번 길을 잘못 들어서서 실패를 경험하였더라도, 굽임없이 고치고 나아가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했던 원동력이었다.

백범은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었다. 다만 그에게는 항상 새기고 있는 작은 다짐들이 있었다. 그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기 위해 책장을 연 순간, 그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는 지금 이



▲ 백범 김구

순간, 우리들은 백범이, 백아가, 매한이 된다.

책장과 함께 그와 함께 내뿜은 호흡들, 그와 함께 걸었던 발걸음들도 덮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곧 몸을 일으켜 안개를 헤치고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그 걸음을 계속할 것이다. 혼탁한 세계에서 청량한 세계로. 지옥에서 극락으로. 세간에서 출세간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꽃을 피우며 말이다.

〈행정학과 4학년 이채영
cod2nim@police.ac.kr〉

대학로 연극의 매력은 ‘관객과의 소통’ 아닐까요?

〈사춘기 메들리〉연극배우 유정한 씨를 만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에 위치한 대학로 소극장에는 주말마다 연인끼리, 친구끼리 연극을 보러 찾아오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2010년에는 331만 명, 2012년에는 456만 명이 대학로 소극장을 방문했으며, 이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울연극센터, 「2013 대학로 연극 실태 보고서」) 어렸을 때부터 TV나 컴퓨터를 통한 영화, 드라마, 동영상 등 영상매체의 홍수 속에 살아온 2~30대 젊은이들에게 아날로그적 요소가 주는 이르는 연극이 꾸준한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배우 유정한 씨(26)는 주저 없이 대학로 소극장 연극의 매력은 ‘관객과의 소통’이라 말한다. 배우 유정한 씨는 〈사춘기 메들리〉라는 연극에서 극 중 신영복 역(役)으로 열연 중이다. 〈사춘기 메들리〉는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KBS 특별 드라마로도 방영된 바 있는 풋풋한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다. 작품 속 감초 같은 그의 능청스러운 연기는 주인공을 능가하는 존재감으로 관객들의 뇌리에 각인되는 동시에 관객들에게 연극의 재미를 알려 준다. 대학로의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나 대학로 연극의 매력과 연극배우로서의 삶에 대해 들어 보았다.

1. 연극배우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고3 때 학교에서 단체로 이도경 선생님이 출연하신 〈옹피위에 개피〉라

는 연극을 보고 반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던 운동을 그만두고 배우의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혼자 대본을 뽑아서 연습해 보고, 춤과 노래도 열심히 연습했죠. 대학에서 2년간 공부한 후에 어린이 뮤지컬이나 단편영화 몇편에도 출연했는데, 작년에 〈사춘기 메들리〉 오디션을 본 후 대학로에서 처음으로 연극을 시작했어요.



▲ 연극 〈사춘기 메들리〉포스터 (맨 오른쪽이 유정한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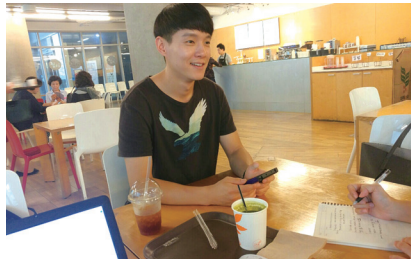
2. 연극을 하면서 언제 가장 큰 보람을 느끼시나요?
한 번은 공연 후에 관객 한 분이 오셔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 많이 우울했는데 공연을 보는 내내 웃어서 기분이 좋아졌다면서 고맙다고 울먹이시는데 그때 엄청 뭉클하더라고

요. 그렇게 제가 좋아서 하는 연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할 때 가장 큰 긍지를 느껴요.
또 고등학생들이 공연을 보고 배우가 되고 싶다고 SNS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막 연히 운동을 하다가 연극을 보고 꿈을 가지게 됐는데, 저처럼 꿈이 없던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준다고 생각하면 공감도 되고 해서 뿌듯하죠.

3. 대학로 연극이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도 관객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영화나 대형 극장에서 하는 일방적인 공연과는 다르게 소극장에서는 관객과 배우들이 가까워서 소통할 수 있어요. 몇 미터 안 되는 거리에서 관객들이 배우의 미세한 표정 변화, 숨소리, 땀 흘리는 것까지 생생히 느낄 수 있죠. 또 배우들이 관객들에게 토크 대사를 던지거나, 관객을 무대로 불러내기도 해요. 사람들이 이러한 대학로 연극만의 관객 참여적 요소에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4. 추천하고 싶은 연극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대학로 연극 하면 로맨틱 코미디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그 외의 장르도 재미있는 연극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쉬어매드니스〉는 관객과 함께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는 코믹 추리 수사극인데, 관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는 새로운 형식의 연극이에요. 슬픈 감성을 찾으신다면 〈행복〉이라는 연극을 추천해요. 저도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 대학로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배우 유정한 씨

5.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요?
저는 경험 자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장르를 불문하고 연기 경험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누구한테든 “연기 잘하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희로애락을 잘 표현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6.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연극을 하면서 금전적인 걱정 등 현실적인 질문을 많이 받아요. 물론 힘든 부분도 있죠. 하지만 저는 항상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기 싫은 일 하다가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답해요. 저는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행복해요. 여러분도 한 번뿐인 짧은 인생에 남들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무언가를 하려고 생각하는 것과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난 안 되겠지, 다음에 해야지, 라는 생각 대신에 본인이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시고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재미있어서 라는 이유 외에도 배우들을 실제로 보며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스크린에 익숙한 사람들을 무대 앞으로 이끌고 있다. 다채로운 꿈과 열정을 가진 배우들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며 작품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은 연극의 매력을 배가 시킨다. 하지만 점점 연극들의 상업성이 짙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관객들이 능동적으로 연극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기 순위 안의 연극만 선택하지 말고 자신의 취향에 맞게 잘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연극들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소극장에서의 연극이 단순한 물리적 가까움을 넘어 진정으로 인간 대 인간이 소통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학년 송채은 기자
20160047@police.ac.kr〉

현대 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展 서울 예술의 전당서 개최

현대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르코르뷔지에(佛)의 작품전시가 12월 6일부터 2017년 3월 26일까지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국내 최초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역대 르코르뷔지에의 전시 중 세계 최대 규모로 열린다. 미공개작 140여 점을 포함해 500여 점의 작품을 이번 전시에 선보일 예정이며 르코르뷔지에 재단이 공식 주최한다. 또한, 르코르뷔지에를 정신적 스승이라 하며 존경해온 살아있는 건축의 거장 안도 다다오의 작품 55점도 전시장 한쪽에 마련될 예정이다.
르코르뷔지에의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건축가이다. 도미노 구조, 공간 절약형 주거 건축법, 대단위 주거지 창안, 인체공학적인 모듈러 이론, 현대 건축의 5원칙 등 현대 건축 이론의 기본원리 대부분이 그에게서 나왔다. 이

중 모듈러 이론이란 인간 신체의 표준적인 척도와 비율을 기초로 황금분할을 찾아내서 그것을 건축학적으로 수치화한 것이다. 다시 말해 최소한의 공간 속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는 표준수치를 말한다. 르코르뷔지에의 서민들의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람의 몸을 연구하게 되었고 사람이 사는 데에 필요한 공간에 관한 모든 수치를 몸과 관련하여 연구한 결과 ‘모듈러’라는 표준 수치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 르코르뷔지에가 살았던 오두막의 내부모습

이러한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그가 살았던 4평짜리 오두막이다. 이 건축물은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건축물 100위 안에 선정된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이번 전시 제목의 ‘4평의 기적’이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두막 안에는 침대 2개, 옷장, 선반, 책상, 의자가 있고 화장실도 있다. 오두막 내부 공간이 그리 크지 않아 좁아 보일 것 같지만 모듈러 시스템을 활용한 내부설계로 사람들은 이곳에서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르코르뷔지에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 4평짜리 오두막에서 작업하였고 훗날 작업의 결과물들이 유네스코에 등재되기도 한다.
이번 전시는 르코르뷔지에의 현대 건축물 17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 첫 전시이며 미공

개작을 포함하여 500여 점이라는 세계 최대 규모로 전시될 예정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미공개작은 1900



▲ 르코르뷔지에의 개방형 건축방식이 경찰대학 건물에서도 적용됨(위 : 빌라사부아, 아래 : 경찰대학 대강당)

년대 초 르코르뷔지에가 화가를 꿈꾸며 그린 수채화, 소묘 등이 전시되며 프랑스에 있는 4평의 오두막을 재현하여 전시장에 마련되어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전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17개의 건축물이 있는 프랑스, 스위스, 일본, 독일 등 7개 국가로부터 후원을 받아 외교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전시이다. 르코르뷔지에의 “건축의 목적은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데 있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번 전시에서 작은 공간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게 했던 르코르뷔지에의 공간혁명과 그것으로부터의 감동을 직접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

〈2학년 설성환 기자
20150054@police.ac.kr〉

제 198호

학보

QUIZ

▶ 제 198호 학보의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답을 작성하여 12월 31일까지 20140037@police.ac.kr로 보내주시면 ▶ 추첨을 통해 10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외부독자들께서는 성함, 주소를 남겨주세요.

1. 제36회 청람축전의 테마는 무엇인가요?

2. PASFA에서 허물없이 말을 건네는 사이라는 뜻의 키워드는?

3. 제2회 치안학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팀의 연구 주제는?

4. 김영란법에 대해 위한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 갑질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대상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6. 태국 왕립경찰사관학교의 교육이념은 무엇인가요?

7. 국립 경찰 교향악단이 경찰 관악대에서 오케스트라로 확대 개편된 해는 언제인가요?

8. 청람 대학생 토론대회는 어떤 진행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9. 일본의 드론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10. NRW 경찰학교 훈련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실무과목이 있습니다. 어떤 과목들이 있나요?

11. 캄보디아 해외봉사단이 간 초등학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2.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3. 이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14. 배우 유정한 씨의 첫 연극 작품은 무엇인가요?

15. 경찰대학 총동문회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16. 범죄수사 기법의 하나인 통신수사는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사하는 방식인가요?

17.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의 이론 중 신체의 표준적 척도와 비율을 수치화한 것은 무엇인가요?